

# 청년 추가 채용 기업 연간 9백만 지원

### 신흥국 취업 청년 정착지원금 400→800만원 확대 중소기업 취업해 3년 근무하면 3천만원 목돈 기회 오프라인 청년센터 올해 하반기 중 전국 17곳 오픈

청년(만15~34세)을 정규직으로 추가 채용하는 5인이상 모든 사업장에 1인당 연간 900만 원의 고용장려금이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1일 추경안의 국회를 통과로 지난 3월15일 발표된 청년일자리대책 개선안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오는 6월1일부터 고용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개선되는 내용은 청년일자리 대책 발표시점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돼 발표일 이후 취업한 청년부터 개선안을 적용을 받게 된다.

이번 대책은 청년을 고용한 기업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대상과 금액이 대폭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성장유망 중소기업에서 3명의 청년을 채용하면 1명의 인건비가 지원됐지만 앞으로는 일부 유해업종

을 제외한 모든 5인이상 중소·중견기업에 지원된다.

청년(만 15~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고 전년말보다 전체 노동자 수가 증가한 중소·중견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요건은 사업장 규모별로 차이가 있다. 30인미만 사업장은 1명 이상, 30~99인 사업장은 2인 이상, 100인 이상 사업장은 3명 이상 추가 채용해야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1인당 연 900만원씩 3년이다. 종전 1인당 연 667만원에 비해 대폭 확대된 것이다.

지원 한도는 사업장 1곳당 90명으로 제한된다.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나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도 대폭 강화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2년간 근무하면 1600만원을 마련하는 2년형이 있었으나, 이에 더해 6월 1일부터는 3년형을 신설해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신설되는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에는 3월 15일 이후 중소·중견기업에 최초로 취업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청년 입직에선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2400만원을 추가 적립해 3년 뒤에는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셈이다.

만약 지난 3월 15일 이후 취업한 자로서 2년형에 가입했으나 3년형으로 변경하기를 희망한다면 7월 31일 까지 청약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업과 청년이 함께 가입해야 하며, 워크넷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 참여신청 후 승인되면 중소기업진흥공단(www.sbcplan.or.kr)에 청약 신청하면 된다.

청년들의 해외취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3월 15일 이후 신흥국에 취업한 청년들에 대해서는 기존 400만원에서 대폭 늘린 800만원의 정착지원금이 지원된다.

약 1년간 맞춤형 교육과 일자리매칭을 통해 상대적 고임금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케이무브(K-Move)트랙 II도 신설하고 6월 1일자로 운영기관 모집공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아울러 청년들에게 취업준비 및 활동공간, 종합적인 청년정책 정보 등을 제공하는 온·오프라인 청년센터를 하반기 중 선보일 예정이다.

온라인 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에서는 일자리 뿐 아니라 복지·주거·생활 등 모든 청년정책에 대한 맞춤형 검색 기능과 함께 실시간 채팅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오프라인 청년센터는 올해 전국에 17개소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동취재반



전주대학교 전기홍 교수가 설립한 ㈜브랜드파이가 수익금 일부 1000만원을 대학교에 발전기금으로 전달했다.

## ‘일자리·장학금’ 두 마리 토끼 잡다 전주대, 전기홍 교수 설립 ‘브랜드파이’

전주대학교 전기홍 교수(경영학과)가 설립한 ㈜브랜드파이가 일지리와, 장학금 마련이라는 두 가지 성과를 동시에 내며 새로운 교육 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다.

재학생에게 일지리와 실무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수익금의 일부를 장학금으로도 내놓으며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있다는 평을 받는다.

29일 전주대에 따르면 ㈜브랜드파이는 2017년 전기홍 교수 김달승 대표가 공동으로 창업한 전주대 최초의 교원창업 기업이 다. ‘기업 컨설팅 및 여론조사’를 주업종으로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경영환경을 분석하며 경영학 이론을 실무에 적용하는 산·학 융합의 감을 마련하였고 지속적으로 트렌드를 분석하여 경영적 통찰을 제공한다.

현재는 대학원생 및 학부생 30여 명이 사업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기동취재반

하고 있다.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과 전주대학교 IINC+사업단의 사업 만족도 조사 국제한식조리학교의 장기 전략 컨설팅을 진행했다. 올해에도 다양한 관공서 및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올해부터는 전주대학교 졸업생 및 석·박사 과정 학생을 우선 채용하여 일자리까지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 28일에는 수익금의 일부, 1,000만원을 경영학과 장학금으로 내놓기도 했다. 장학금 전달식에 참여한 전기홍 교수는 “향후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꾸준한 매출성장을 도모하면서 학생들의 역량제고와 일자리 창출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 내 교원창업 기업은 총 2개 기업이다. 창업 기업들은 전공 실무교육 지원과 다양한 사업 아이템 개발 장학사업 등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기동취재반

## 강선경 원광대 교수, 과기정통부 장관상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 수행 결과 우수성 인정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 창의공과대학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 강선경(사건)교수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 수행 결과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지난 2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8 ICT 기술사업화 페스티벌에서 진행됐으며, 강선경 교수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창조경제밸리 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전문가(Project Specialist) 1, 2기에 연속 선정돼 판교 테크노밸리 기업들이 연구개발 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다양한 중소기업

업 또는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ICT R&D 신규 사업 발굴 및 기획위원으로 활동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판교 테크노밸리에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연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데 발생하는 애로사항이나 해결이 필요한 연구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기업이 연구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 성공을 통한 성과 창출 등을 높이 평가받았다.

강선경 교수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맞춘 ICT R&D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기획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대학에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해 학생들이 경쟁력 있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 이희선 전북대 교수, 바이오키트 개발

### 꿀풀·식물 레몬밤에서 바이오 신소재 추출 ‘사이언티픽 리포트’ 표지 논문 선정 내달 게재



전북대학교 이희선 교수(농생대 생물환경화학과)가 꿀풀과 식물인 레몬밤에서 바이오 신소재를 분리·정제해 진드기 방제 하고 식별까지 가능한 바이오키트 개발에 성공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중견연구자지원사업(후속) 지원으로 수행된 이번 연구 성과는 네이처를 출판하고 있는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 6월호 표지 논문으로 선정돼 게재될 예정이다.

또한 이 연구는 국내 특허로 등록되었으며, PCT 출원을 통해 해외 특허까지

출원한 상태다.

식물에서 얻은 천연 물질로 진드기를 방제할 수 있는 바이오키트 개발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이 교수는 관련 연구로만 국제 저널에 7편의 논문을 연속적으로 게재하는 성과를 올렸다.

특히 이 교수는 지난해 살인진드기를 방제할 수 있는 바이오 소재 기술을 ㈜국보사이언스에 1억 원에 기술이전했고, 오디텍(주)에도 연이어 기술이전을 성공시키며 큰 주목을 받았다. 이 같은 성과로 올 초 농진청 영기술평화원으로부터 농업발전과 농업기초기반연구사업 우수성과 도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기동취재반

## 전북도교육청, 공·사립 교원 명예퇴직 신청

공무원 연금법상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까지 1년 이상이 남아 있어야 한다.

다만 징계 의결이 요구돼 있거나 징계처분이 요구된 사람,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인 사람 등은 명예퇴직 대

상에서 제외된다.

도교육청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인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8월 중에 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기동취재반

## 봉서초, 친환경 교육환경 조성 쿨루프 공사 마무리

완주 봉서초등학교는 KCC전주공장(공장장 이한배)으로부터 사회공헌 활동 일환으로 2천만 원을 후원을 받아 (사)전북도지원봉사센터의 협조로 교실 건물 옥상의 햇빛을 방사시켜 여름철 교실 온도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이른바 ‘쿨루프(Cool Roof)’ 공사를 마무리했다.

‘쿨루프’는 시원한 지붕을 의미하는데, 열섬현상 완화와 냉방 에너지 절약에 의해 옥상 색을 밝은 색 도

료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쿨루프는 햇빛과 태양열의 반사와 방사효과가 있는 밝은 색 도료를 지붕에 시공해 지붕표면의 열기 축적을 감소시키는 공법으로, 여름철 실내 온도를 낮춰줌으로써 에너지 절감 및 에너지 효율화에 효과적이며, 시원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으로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높는데 기여한다. /기동취재반

가장 한국적인 세계도시 전주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우뚝 서겠습니다